

예술로 다시 세우는 광주 정신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GB커미션'

마이크 넬슨 등 해외작가 4명 참여
옛 국군통합병원 등 전시공간 활용

GB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정신의 지속가능한 역사화·담론화의 시각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 제작이 본격화됐다. 참여 작가들이 옛 광주국군통합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 제작에 들어가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 정신을 시각매체로 승화·확장하는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인 GB커미션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문화예술로 승화하기 위해 창설된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성을 지구촌에 재선언하며 민주와 인권, 평화의 목격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추진됐다. 전시에는 아드리안 비샤르 로하스(Adrian Villar Rojas), 마이크 넬슨(Mike Nelson), 카데르 아티아(Kader Attia), 아피차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이 참여한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아드리안 비샤르 로하스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신작 영화 'War of the Stars'를 촬영 중이다. 공간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개입하는 장소특정적 설치작품을 주로 선보여온 그는 국경에서의 삶 등 경계의 문제를 광주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3일 옛 광주국군통합병원에서 작업 중인 마이크 넬슨.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 1관에 전시되며 8월 말 광주를 방문해 설치 작업도 진행한다.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영국관 참여 작가로 영국 권위 미술상인 터너프라이즈에 두 번 노미네이트된 설치미술 작가 마이크 넬슨은 현재 옛 국군통합병원에서 작품 제작을 하고 있다. 1980년 당시 치열한 현장이었던 통합병원 건축물을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일 그는 병원부지 내 작은 교회에서 다양한 부속품들을 재구성한 장소특정적 작품을 선보인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인 부모를 둔 카데르 아티아는 개인적 삶의 터전인 프랑스와 이민자 2세로서 이질적

인 문화 영역에 기반한 작품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 생존자를 만나 당시의 상처로 인해 1980년에 머무른 광주 사람과 현재의 세계 사람과의 연결을 시도할 예정인 그는 현대적인 심리학과 전통적인 민속학을 통해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영상 시리즈에는 광주트라우센터 상담자 등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담는다.

그는 또 허물어진 오래된 집에서 나온 25여 개 고목제 기둥으로 제작한 조각물과 영상을 중심으로 한 설치작업도 선보인다. 악귀로부터 마을 입구를 지키는 나무 장승을 세우는 토착적 신념과 행동을 1980년대 군사정부로부터 탄압 받았던 반체제 혁명의 장소인 광주와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그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영상 촬영을 진행한다.

태국 현대미술가이자 실험영화 감독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은 지난 5월 2일부터 3일 간 광주에 머물며 광주국군통합병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작업적 영감을 얻었고 오는 6-7일 광주를 찾아 작품을 더욱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서구 열강 침략이라는 집단적 경험을 지닌 아시아의 근대성과 상흔에 대해 천착해온 그는 옛 광주국군통합병원 본관 2층 대강당 및 당구대가 있는 방 등에서 움직이는 당구공과 스크린을 통해 광주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서자 단의 세계관을 녹여낼 계획이다. 그는 비엔날레 기간인 9월 7-8일 광주국군통합병원에서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08-422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달 중순 일본의 공공도서관을 취재하기 위해 후쿠오카에 다녀왔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여서인지 시내버스의 한국어 안내와 식당의 한글판 메뉴까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수많은 명소 가운데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핫플레이스는 단연 모모치 해변의 후쿠오카타워였다. 평일 한낮인 데도 바다와 타워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이들이 많았다.

1989년 모모치 해변에 세워진 234m 높이의 타워는 후쿠오카 워터프론트 지구의 아이콘이다. 8000여 장의 유리로 마감된 건물은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외부의 화려한 야경 사진을 찍을 수

했다.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광주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5·18타워 카드'는 기대 보다는 격정적 앞선다. 물론 초대형 스케일의 5·18 상징탑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과연 이 거대한 탑이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500m가 넘는 탑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랜드마크에 대한 인식이

'5·18 빛의 타워'에 대한 단상

있다. 특히 지상으로부터 116m, 123m 지점에 있는 전망대에 서면 푸른 빛의 모모치 해변과 하카타만(灣)의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1982년 해안을 인공적으로 매립해 거대한 수변지구를 조성한 후쿠오카시는 타워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실 외국의 문화도시에는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랜드마크가 많다. 상하이의 동방명주,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스페인의 발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등은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한다. 이 때문에 국내 각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효과를 노린 랜드마크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7기를 맞은 광주시 역시 마찬가지인 듯하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전인 수위위원회 성격의 광주혁신위원회를 통해 518m 높이의 '5·18 빛의 타워'(이하 5·18타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

변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때 화려한 건축물이 대세였지만 전문적인 예산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변경관과 시민소통을 배려한 '공적 공간'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송하엽의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 중에서). 폐선부지를 '문화적으로' 되살려낸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나 수명 다한 화려발진소를 리모델링한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이 후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만약 광주다움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찾는다면 광주의 거리를 돌아보라. 폐선부지에 문화를 접목한 '푸른길'에서부터 세계적 거장의 조형물인 30개의 광주폴리 돔 등 숨겨진 보석들이 많다. 구슬을 엮어서 '브랜드'로 만들려는 시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것이지, 잠재력을 갖춘 랜드마크는 가까이에 있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정경화-조성진 여수서 앙상블 무대



정경화



조성진

9월6일 예술마루... 내일 예매 개시

'정경화&조성진 듀오 콘서트'가 오는 9월6일 오후 7시30분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열린다.

정경화는 세계 무대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아온 거장 바이올리니스트이다. 강렬한 음악적 감수성과 예술적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전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높은 찬사를 받아왔다. 2014년 런던 로열 페스티벌홀 리사이틀, 2016년 베르비에 페스티벌 개막연주, 2017 뉴욕 카네기홀 바흐 무반주 전곡 연주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뉴잉글랜드 콘서트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를 맡고 있다.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소피아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조성진은 2009년 일

본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했다. 2011년에는 17세의 나이로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에 입상했다. 이후 2012년에 파리로 건너가 파리 음악원에서 미셸 베로프를 사사했고, 2015년에 학업을 마치고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중심으로 슈만, 베토벤, 프랑크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 레퍼토리는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단조 Op.105',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7번 C장조 Op.30, No.2',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다.

티켓 오픈은 5일 오전 11시이며 예술마루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문의 1544-766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공대생 시인 최류빈씨 오늘 북토크

현대 사회에 관한 분석부터 사랑에 대한 광기 어린 언어까지... 포엠포엠 시인선 '장미氏,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의 저자 최류빈 시인(전남대 생물공학과 4학년·사진)이 4일 전남대 대학본부 1층 세미나실에서 북토크를 갖는다.



지역청년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시인이 다양한 지역자원들과 연계하는 출판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진행은 김영한 전남대 정년강연팀 '영보이스토리' 대표가 맡는다.

이번 출간기념 북토크에서는 최류빈 시인의 진출한 생각을 듣는 시간과 시집에 수록된 시편들을 독자와 함께 낭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독자들의 사연을 받아 맞춤형 시를 처방해주는 '시 처방'과 같은 치유 프로그램도 곁들여진다. 또한 학생문예지 '글아치' 발간 팀인 스토리에이블의 대표이기도 한 최 시인은 '글아치' 출간을 기념하는 시간도 곁들일 예정이다.

모두 69편의 시가 수록된 '장미氏, 정오에 피어줄 수 있나요'는 공대생 특유의 범경계의 언어, 사실에 대한 문학적 분석 등이 특징적이라는 문단의 평이 따랐다.

한편 최류빈 시인은 지난 해 시 전문지 '포엠포엠'에 등단했으며 광주문화재단의 창작자금 지원을 받아 시집을 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17일까지 공모

한국문학번역원(원장 김사인)은 오는 17일까지 '2018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 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문학의 의미를 시공 간적으로 확장한다는 취지로, 해외 동포들이 쓴 작품을 독자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마릭 '압록강은 흐른다',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김은국 '순교자', 이민진 '파친코', 김석범 '화산도', 가네시로 가

즈키 'GO',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등 해외 동포 작가들의 작품 18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독후감 제출 마감일은 17일이며 지원서와 200자 원고지 12매 분량의 독후감을 (leeyoomi@klti.or.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양식은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